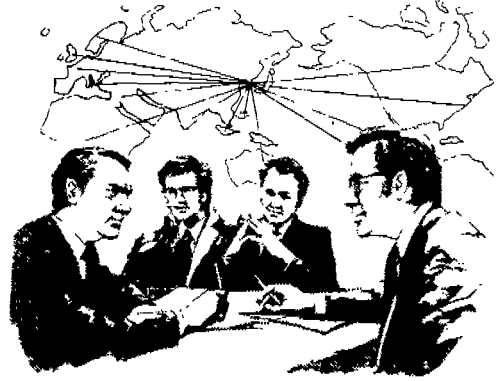


# 石油需給에 큰 不安 없다!!

— 供給減量되나

消費 2% 下向調整으로 —

## IEA 首席 프런슨씨의 見解



國際經濟政策調查會의 招請으로 日本을 訪問한 IEA(國際에너지機關)의 首席 에코노미스트, 포우만 T.프런슨氏는 記者會見에서 今年의 自由世界의 石油需給等에 對한 見解를 明白히 했다. 이에 依하면 OPEC(石油輸出國機構)로부터의 石油供給은 去年에 比해 日量 約140萬배럴이 減少하나 消費도 景氣의 沈滯나 節約에 依해 줄어들어 石油需給에는 큰 不安이 없다고 했다. 프런슨氏의 會見要旨와 同氏가 밝힌 石油需給은 다음과 같다.

1. IEA의 1981年 石油需要 豫測은 豫想 以上の 石油消費 減少로 下向調整되고 있다. 第2, 4半期以後의 石油需要 豫測上 重要한 要因이 되는 것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의 經濟不況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今年 後半에 回復勢로 접어들 것이냐에 있다. IEA의 今年의 自由世界 石油消費 豫測은 日量 約4,800배럴로서 이는 OECD의 GOP(國內總生産) 成長率을 1.5%로 잡은 것이다. 現時點의 81年 石油需要豫測은 지난번의 豫測보다도 2% 下向調整 되었다.

1. 石油의 世界市場 價格은 弱화되는 需要를 反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產油國을 除外하면 스포트石油價格은 政府公式販賣價格보다도 1 배럴 당 2.3달러 싸게 되어있다. 이것은 77~80年의 石

油價格 引上이 先進國과 發展途上國의 經濟에 무거운 負擔이 되어 있다는 證據로서 OPEC加盟國중에서도 이같은 事實을 認定하는 政府關係者가 늘어나고 있다.

1. 非OPEC加盟 地域으로부터의 石油供給은 大體로 去年과 비슷한 日量 2,200萬배럴로서, 自由世界는 日量 2,500萬~2,600萬배럴의 石油를 求하게 될 것이다. IEA事務當局에서는 이란 및 이락의 石

自由世界의 石油需給 100萬배럴 / 日

〈需 要〉

	1981年	1980年
IEA 加盟國	35.1	36.0
IEA以外的 OECD加盟國	2.2	2.6
其 他	10.5	10.8
計	47.6	49.4

〈供 給〉

IEA 및 OECD 加盟國	15.3	15.7
非OPEC途上國	6.0	5.6
共產圈 純輸出	1.0	1.0
OPEC 加盟國	25.5	26.9
計	47.8	49.4

(37p에 계속)

만해도 會社 全體로서의 ULTC 運轉指針이 없었는데 이를 契機로 運轉指針을 만들게 되었다. 當時 系統電壓의 變動回數와 變動幅이 甚하였으므로 自動으로 運轉하면 每日 30回 以上 자주 動作할 뿐만 아니라 變動幅이 커서 ULTC Tap가 Over run 되기 쉬운 憂慮가 있었기 때문에 手動運轉하되 Over run을 防止키 爲해 最高 및 最下 tap를 使用치 못하도록 하였다. 製作會社 推薦書에는 Diverter Switch의 OT는 20,000回動作後에는 바꾸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로서는 安全하게 年 1回以上 Diverter Switch의 OT를 點檢하고 必要하다면 바꾸도록 하였고 變電所 運轉日誌에 ULTC 運轉記錄을 記載토록 改善하는 등 그동안 未備하였던 것을 우리 實情에 맞도록 改善할 수 있었다.

系統에 重大事故가 發生하면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總動員되어 秒를 다투어 仮送電이라도 하고 時를 다투어 復舊에 全力을 다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不得已한 事故든 瞬間的 誤判에서 온 事故든 그 事故波及 如何에 따라 애매하게도 責任追窮과 處罰이 뒤따르게 되니 全國 구석구석 널려 있는 電氣設備가 어디서 어떻게 事故를 일으킬지 그 누가 알겠는가. 設備의 運營을 맡은 사람이면 恒常 不安하며 不意의 重大事故를 當하면 이제 는 職場에서 쫓겨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한 두사람이겠는가. 그러나 社會에 奉仕하는 精神으로 그들은 오늘날도 最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 略 歷 ●

- 1954.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1955. 1. 남선전기주식회사 입사
- 1963. 4. 충북지점 공무과장
- 1967. 4. 송변전부 보수과장
- 1976. 4. 송변전 부장
- 1979. 2. 한국전력주식회사 이사

(31p에서 계속)

油生産 能力이 向上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今年의 石油需給 밸런스는 確保된다.

1.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에 의한 原油의 價格統一이 實現되기까지는 增産体制를 持續할 것이다. 그러나 一旦 價格統一이 實現되면 어느 程度 原油生産을 줄이게 되어 日量 800萬배럴을 下廻할지도 모른다.

1. IEA의 緊急融資시스템은 7%의 石油不足을 條件으로 하고 있으나, 不測의 事態에 좀 더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없는지 IEA 内部에서는 檢討되고 있다. 그 때 基本的인 問題는 各國이 90日 以上の 備蓄을 어떻게 增積하느냐 하는 것이다. 石油供給構

造의 變化에 의해 石油의 流通面에서의 國際石油資本의 市場占有率은 低落하여, 中小規模의 石油會社들이 大量의 石油備蓄을 保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石油會社는 石油需給이 多少 緩和된 時에, 높은 코스트의 石油備蓄을 增加할 수가 없다. 더욱이 美國이나 西獨은 民間의 自由競争에 政府가 介入할 수는 없다.

그래서 政府의 財政支出이나 援助에 의하여 備蓄을 增加시키는 方法을 研究하고 있으나 IEA 加盟國間에서는 아직 아무런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